

**한·중·일 건축교류협정 체결**

**이사회 개최**

**건축3단체, 경쟁제한법령 개정안 공동대처**

**97년도 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간담회**

**제2차 아·태건축 국제심포지엄**

**세네갈 GOREE기념박물관 국제현상설계**

**서울시, 현상설계 체계확립방안 마련**

**건축시간 안내**

**한·중·일 건축교류협정 체결**

3국 건축사協, 중국 북경에서  
협의체 구성 합의

앞으로 한·중·일 세국가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건축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 협회(회장 김영수)를 비롯해 중국의 등록건축사협회(전국 등록건축사관리위원장 우이량) 그리고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회장 사와다 미츠후사) 등 3개국 건축사단체는 지난 1월 8일 중국 북경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앞으로 동북아시아 국가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일 건축교류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협정서 체결에 참가한 이들 3개국 건축사단체들은 이번 합의로 세계무역기구(WTO)차원의 시장개방에 대비해 동북아시아 차원의 지역협조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인 국가간 건축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정기총회를 개최기로 하고 차기회의는 내년 4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이번 창립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 상호방문 및 관심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 기술교류 및 간행물 등의 정보교환 ▶ 건축사등록에 관한 제도·정책·법규 등의 자료교환 ▶ 연구발표 및 전시회 등에 관한 학술·문화사업 협력 ▶ 기타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왼쪽부터 김영수 회장, 우이량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장, 사와다 미츠후사 일본건축사회연합회장

**이사회 개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 변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7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1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1회

- 제1호 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전산화개발 용역업체 선정 승인의 건
  -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전산화개발 용역업체로 한국유니시스(주)를 선정키로 함.
- 제2호 의안 : 건축사시험관리업무 세부기준(안) 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직원 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급갑 1명→3급 갑, 7급갑 3명→6급갑)
- 제4호 의안 : 경조비 지급기준표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경조비 지급기준을 '15만원 이내' 로 개정)
- 제5호 의안 : 임회비관리회계 임의적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7년도 1~3월중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을 위하여 임의적립금 6천만원을 일시차입)
- 제6호 의안 : 복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복무규정 제14조 '지참 및 조퇴의 영향' 삭제)

구 분	직접인건비	학력 및 경력의 기준		
		대졸	전문대졸	공고졸
건축사	153,805	-	-	-
건축사보(고급)	111,484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건축사보(중급)	90,147	5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14년 미만
건축사보(초급)	63,872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보 조 원	55,263	-	5년 미만	7년 미만

- 제7호 의안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 인건비 기준변경(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시행일자는 1997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키로 함.

### 건축3단체, 공정위 경쟁제한 법령 개정안 공동대처

건축3단체장 조찬회에서

「건설업계의 건축설계업 진출허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법령 개정안 처리방향을 두고 우리 협회와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건축3단체 회장단은 지난 1월 2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경쟁제한법령 개정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만간 건축계 반대여론을 수렴,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3단체 회장은 이번 공정위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설계·시공의 분리원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사태를 막기위해 3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논리로써 대처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각 단체의 역대회장단을 중심으로 향후 건축계 원로모임을 정례화해 건축계의 현안 및 공동관심사에 있어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3단체를 네트워크화해 수시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각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보센터운영방식을 개발해 공동운영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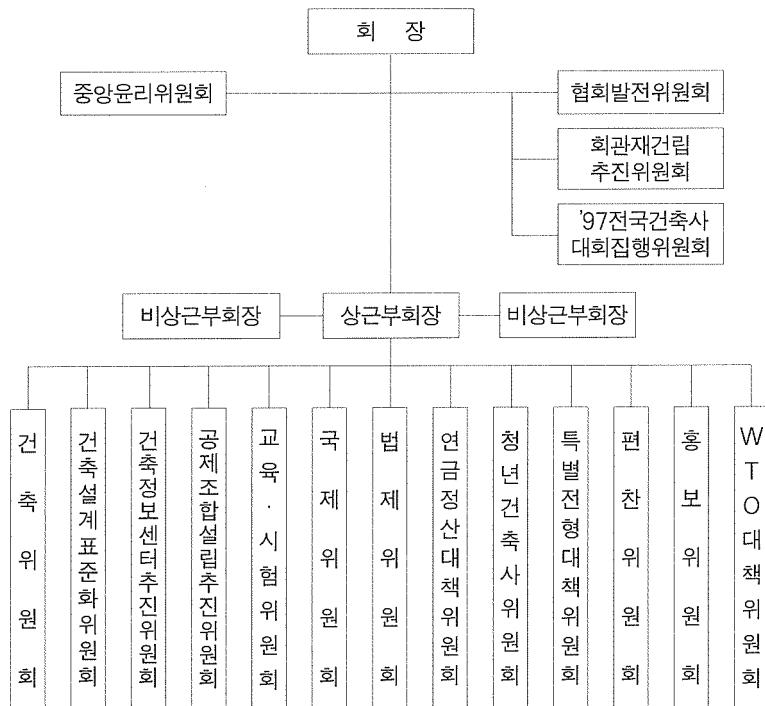
### 97년도 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간담회

각 위원회별 활동 강화

올해 우리 협회 각 위원회별 활동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97년도 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합동간담회가 신년 교례를 겸해 지난 1월 7일 오후 2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발전위

원회를 비롯해 '97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 회관재건립추진위원회, WTO대책위원회,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올해 새로 신설된 위원회들이 여느해 보다 많아진 관계로 위원회 운영상 예견되는 사업중복과 혼선을 막고 위원회간 역할조정과 회장의 지휘중점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 대다수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왔던 반면,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 참석률 저조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전임위원중 활동적인 위원들을 30%씩 잔류시켜 위원회 활동의 연계성을 도모키로 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계, 유관단체, 전문가 등 외부인사들을 다수 포함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사업을 2~3개 관련위원회가 공조해 추진키로 하는 등 위원회활동 강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올해의 우리협회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997년도 위원회 조직표



## 건축관련 언론과의 간담회 개최

현안관련 협회 입장 및 올해  
중점추진사업 밝혀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건축·건설관련 언론관계자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관련 신문 및 건축전문잡지의 편집장과 기자 등 60여명이 함께 자리한 이번 간담회에서 본협회 김영수 회장은 먼저 현안관련 협회의 입장과 올해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밝히고 이어 기자들과 일문일답 형식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회사의 설계참여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법령 개정안을 내놓은데 대해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이번 사안이 결코 규제완화 대상의 성격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간담회 광경

## 제2차 아·태건축 국제심포지엄

「공공장소의 건설」 주제로  
4월 9일부터 하와이에서

미국 하와이대학 건축대학원이 주최하는 「제2차 아·태건축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공공장소의 건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공장소 설계를 위한 역사적·문화적 고찰」, 「정치·사회·경제적 배려를 통한 공공장소의 변화목적 및 가치」, 「공공장소의 보존과 발

전에 대한 정책과정」, 「아·태지역 주요 도시 공공장소의 적극적 투자와 사례연구」 등을 내용으로 발표 및 토론이 열린다. 참가등록 마감일은 오는 3월 28일이며 등록비는 2월 28일 이전 등록자에 한해 미화 350달러, 2월 28일 이후부터는 400달러로 참가자는 별도의 숙박비(1일 기준 120달러)와 회의자료비 12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참가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02-581-5711~4)

## 세네갈 GOREE기념박물관 국제현상설계

강석원 건축가협회장, 심사위원으로 선정  
참가신청접수 2월 20일까지

세네갈 정부가 다카르 마들레이灣에 위치할 박물관 및 정보·연구센터 등의 시설물에 대한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다. 1백 50만 아프리카인들의 순례지가 될 이 기념단지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자유와 인내로부터 창출된 문명을 건설하려는 끈질긴 아프리카인의 의지를 형상화시켜 향후 아프리카 공동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승인을 얻어 UNESCO의 지원하에 실시되는 이번 설계경기는 1단계 공개설계경기로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이 심사위원에 선정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응모자는 12,000㎡에 이르는 설계공간에 기념관과 2개의 박물관(항해박물관 및 노예거래박물관) 그리고 정보·연구센터를 설계해야 하는데 전체 기념단지의 각 부분을 연결하여 관람객들의 이동공간이 될 녹지공간의 설계가 주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프로젝트에는 아프리카 서안지역에 위치한 고레섬이 상징하고 있는 신세계의 발견과 노예무역을 형상화한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비롯해 다카르시와 고레섬과의 상호관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1등에 미화 5만

달러, 2등에 3만달러, 3등에 2만달러가 각각 수여되는 이번 국제현상설계의 참가신청 접수마감은 오는 2월 20일까지로 일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일정
    - 질의접수 : '97. 4. 20
    - 질의응답 마감 : '97. 4. 30
    - 작품제출 마감 : '97. 6. 20
    - 작품접수 마감 : '97. 7. 4
    - 심사 : '97. 7. 22 ~ 27
  - 제출서류
    - 배치도(1/500), 중요 평면도(1/200), 기타 층별 평면도(1/500), 입면도(1/200), 단면도(1/200), 투시도, 설명서 (모든 서류는 붙여와 영어로 제출)
  - 등록서류
    - 모든 서류는 파리 UIA본부로 보내야 하며,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E-mail주소도 함께 기재한다.
    - 제출 대표자의 각국 실무증명서 첨부 (건축사 자격증 등)
    - 등록비 : 100 US\$ (또는 550 FF)
    - 송금은행 :
      - Credit Lyonnais 구좌번호 n°8803
      - 66 rue de Passy - 75016 Paris
      - France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02-744-8050)

## 건축·건설자재정보 CD롬 출시

자재상품정보 등 2만여건의 정보 수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관련 자재정보 2만여건을 단번에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구매자가 바로 생산업체와 연결해서 구매까지 가능한 「건설자재정보 CD롬」이 나왔다. 이같은 건설자재정보화는 자재유통의 신속성과 함께 국내의 경우 아직 건설자재의 「규격 및 분류 표준화」가 안된 상태에서 이를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이번에 이 CD롬을 제작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정보센터에 따르면 「건설자재정보를 CD롬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구축한 건설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 내에도 담아 유니텔·천리안 등 통신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재정보 5천여건(개별상품은 2만여건)을 비롯해 생산업체정보 1천6백여건, 업체소개 사진자료(카다록) 1만여건 등이 들어있는 이 CD롬의 가격은 3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며 구매자는 계속해서 추가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는 천리안의 경우 초기메뉴에서 GO CIC로, 유니텔은 GO CIC 또는 GO CICU로 접속하면 된다.

## 「시민문화발전모임」

### 창립총회 개최

주택·교통·환경 등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벌여

사회 각분야의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비판과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사회 각 전문분야의 인사들이 힘을 모았다. 문화·건축·교육·환경 등 우리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시민문화발전모임」은 지난 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조 순 서울시장과 각계인사, 회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시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다짐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임의 목적과 사업내용, 회원자격, 임원선출 등을 골자로한 정관(안)을 승인한데 이어 최형섭(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유승국(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수학(前 새마을중앙회 회장)씨를 공동대표로, 또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과 오웅석 前회장 그리고 김수복(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창복(성균관대 교수) 김은영(前과학기술연구원장) 씨 등 30여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시민문화발전모임은 앞으로 주택, 교통, 환경보존 문제를 비롯해 세계화 추진과제, 남북통일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연구·발전시키고 대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 실천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회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현상설계 체계

### 확립방안 마련

「심사배점 기준과 방식」 등 25가지 각종 서식 제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현상설계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침을 마련해 앞으로 현상설계 시행기관이나 건축설계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는 현상설계의 시행·응모·심사과정 등을 명료화하기 위해 기존의 현상설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각종 양식과 시행지침을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상설계 실행에 관한 지침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교통부고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시행자들이 설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양식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돼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현상설계 체계 확립방안」에는 기존의 건축설계 운영지침 등 3개 관련규정을 시행자나 설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그동안 많은 문제소지를 안고있던 설계심사위원회의 운영요령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이 방

안에는 점수제가 아닌 O,X방식의 채점을 해 옴으로써 객관성이나 명료성에서 자주 시비를 불러왔던 1차심사시 채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배점 기준과 방식」을 규정한 양식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이밖에 현상설계 공모공고부터 응모신청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25가지를 새로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 강동구, 건축민원 처리결과 통신서비스 실시

하이텔 통신서비스망 이용해 자료 열람

강동구청이 올해부터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민원서류의 처리결과를 하이텔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 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통신서비스는 건축허가나 건축심의, 사용승인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하이텔 통신서비스망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거리의 민원인이나 건축민원관련 기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 신속을 기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하이텔(01410번)에 접속해 초기메뉴에서 GO KDGU를 입력한 후 강동구청 메뉴에서 12번「공지 및 게시판」을 이용해 열람하면 된다.

## 대림콘크리트, ISO9001

### 품질인증 획득

제품경쟁력 향상 기대

대림그룹 계열사인 대림콘크리트공업(주)는 현재 제조, 판매중인 4개품목(PHC파일, PC전주, 레미콘, 미라톤)에

대해 설계, 개발,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등 전단계에 걸쳐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획득했다. 이번 ISO 인증획득은 본사를 비롯 순천·용인·안양·조치원·칠서 등 5개 공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림공크리트측은 이번 ISO9001 품질인증 획득을 계기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제품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국임산물협회, 목재·목구조주택건축 소개

2월 22일부터 KOEX에서 열리는 「경향하우징페어」에서

미국임산물협회(American Forest & Paper Association)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는 오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KOEX에서 개최되는 경향하우징페어에 협회 전시관을 개설하고 미국의 목재 및 목구조 건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목재·목구조건축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을 비롯해 미서부지역 목재협회(WWPA)가 제시하는 목재표준등급과 실제 목재류 샘플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엔 1:1스케일의 모델로 선보일 주요 구조물들은 목구조주택의 주요부위인 벽, 바닥, 창들에 대한 내·외부 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고안되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건축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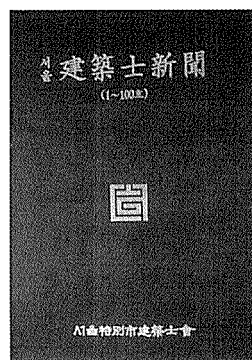
한국인테리어연감 5  
서울건축사신문 축쇄판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 ◇ 1997 한국인테리어연감 5

1995년 한해동안의 실내디자인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체계화해 수록한 '97한국인테리어연감 5가 발간되었다. 이 연감은 실내디자인분야를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플러스문화사가 지난 93년에 첫번째 연감을 낸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것으로 논고와 작품, 제품,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논고편에서는 업계의 동향을 비롯해 건축과 일반디자인이 실내디자인분야와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의 체계성과 변별성, 재료활용, 조명디자인, 컴퓨터 활용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작품편에서는 95년 한해동안 발표되었던 주거, 판매, 업무 등 각종 시설물들이 소개돼 있다. 또 제품편에서는 품목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사진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관련 학위 논문을 비롯해 유명 디자이너의 프로필, 디자인계 동정 등이 자료편에 수록돼 있다. (플러스문화사 권 /02-563-4322)

### ◇ 서울건축사신문 축쇄판 발행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발행하는 서울건축사신문 축쇄판이 나왔다. 이번 축쇄판은 지난 92년 6월 16일자 창간호부터 1백호까지를 한데 묶은 것으로 목차에 주제나 사안별로 각 기사를 분류해 놓아 쉽게 기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격주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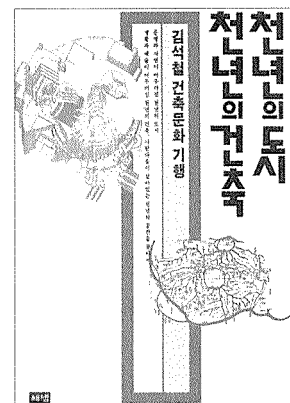


는 서울건축사신문은 정기구독자수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건축전문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권/5만원/581-5715~8)

### ◇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대표) 회원이 건축에세이 「천년의 도시...」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건축에 입문해 건축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와 건축물을 둘러본 후 쓴 기행문, 국내 건축계의 오늘을 진단한 글들을 한데 모아 엮은 것으로 30여년 동안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고리를 건축적 시각에서 엮고 풀어낸 저자의 건축철학을 함께 담고 있다.

책에 수록된 「천년의 도시」는 그리스문명의 기반이었던 크노소스궁전, 성령의 도시 예루살렘, 1000년 동안 세계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스탄불, 베수비오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함께 화산재에 묻혔던 에르콜라노, 최초의 기업도시 맨해튼 등 각국의 고도(古都)를 여행한 후 쓴 글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알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스탄불을 알면 비잔틴 문명의 정수를 깨닫게 된다』며 『세계 각국의 고도에는 역사와 문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냄책/8천원)



### ◇ 정정합니다.

지난호(9701) 회원등록변경 현황 중 145p 신창현 : 고졸→수도공고졸, 김수덕 : 건물건축사사무소→건우건축사사무소, 146p 황종원 : 건우건축사사무소→태인건축사사무소, 주응식→폐임